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2017년 VC 투자유망산업(AR)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2017년 삼목회 도쿄 워크숍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 04 KVCA 소식
 - 2017년 제3차 이사회
 - 회원수첩 발간
 - 사무국 상반기 워크숍
- 05 연수원 소식
 - 2017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개최
 - 2017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개최
 - 5월 교육안내
- 07 투자협력·M&A
 - 찾아가는 투자 IR
 - 벤처투자 사랑방
 - 벤처기업확인 현황(1분기)
 - M&A 활성화 지원사업
- 13 R&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14 협회장 동정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7년도 제2차 이사회 참석
 - UN 중소기업의 날 기념,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 참석
- 15 회원사 소식
- 17 투자유망기업 탐방
 - 알바이오텍(주)

19

이슈 ISSUE

-
- 20 2017년 VC 투자유망산업(AR)
- 22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 23 벤처캐피탈 법률 Q&A
- 24 2017년 삼목회 도쿄 워크숍
 - 도쿄, 테크노 프론티어 전시회 및 아시모 쇼 방문기

발행일 2017년 5월 10일(통권 107호 5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김형수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7

시장동향 Market Trend

-
- 28 2017년 1분기 벤처투자 시장동향
- 34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뉴스 & 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2017년 제3차 이사회

본회는 4월 26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 임원진 30명 중 16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1분기 업무 추진 실적, 회비기준 변경, 우선순실총당 관련 업무 개선방향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회원수첩 발간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협회 임직원 현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5월초에 회원수첩을 발간하였다. 각 사의 임직원 현황은 2017년 4월말 기준이며, 수첩은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회원사 및 기타 국가기관, 유관기관 등에 약 2,000부가 배포되었다.

사무국 상반기 워크숍

본회는 지난 4월 14일(금)~15일(토)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남도의 자연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담양을 시작으로 순천에서 여수로 이동하여 주변 관광, 레저체험 등의 시간을 가진 후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협회 임직원은 남도의 자연속에서 임직원 간의 결속을 다지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원 소식

'2017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개최

콘텐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과 투자 사례를 살펴보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해에도 VC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기관 및 콘텐츠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 콘텐츠 분야의 현장이야기를 듣고, 중국 콘텐츠 시장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 **일자**: 2017년 4월 19일(수)~4월 21일(금) (3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국내·외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장 윤호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영화(터널)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피디) 장원석
영화 투자 리얼스토리,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영화(부산행)	대교인베스트먼트 상무 손석인
영화사(제작+배급) 지분투자 사례 및 최근 동향	티지씨케이파트너스 대표 김지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게임	네시삼십삼분 실장 박형준
게임 투자 리얼스토리,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투자 및 회수 전략, 사례 등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선임 심사역 남훈곤
Hot 콘텐츠 들여다보기(1) - AR 콘텐츠	버넥트 대표 하태진
중국시장 현황 및 전망	원아시아 선임 에디터 유재석
프로젝트 투자금 회수와 계약실무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청산 사례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사 허수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어플리케이션(샌드애니웨어)	이스트몹 대표 오윤식
문화콘텐츠 저작권 성공·실패 사례 - 음원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 심사역 고성호
Hot 콘텐츠 들여다보기(2) - MCN(우먼스톡)	크라클팩토리 대표 김강일
Hot 콘텐츠 들여다보기(3) - VR 콘텐츠	매크로그래프 본부장 조성호



연수원 소식

「2017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개최

본 교육은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임직원 보수교육이며, 교육만기일(교육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임명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 되었으며, 17년도 마지막 차수 교육인 3차 과정은 11월에 개최 될 예정이다.

• **일자** : 2017년 4월 27일(목) (1일 출석) • **장소** :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및 ISSU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동향 및 해외 벤처투자 법령 비교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종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 및 사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파트너 정찬목
청탁금지법 및 사례	단국대학교 교수 김래영



(5월 교육 안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육 명 2017년 벤처캐피탈 바이오 어드밴스드 과정 ● 운영 형태 4일 출석 ● 일 자 5월 23일(화) ~ 5월 26일(금) ● 대 상 자 창업투자회사, LLC, 신기술금융회사, 기타 일반 등 ● 과정 개요 바이오 분야별 산업현황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신청 기한 5월 12일까지 ● 신청 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육 명 2017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2차 - VC 관리 기초 ● 운영 형태 1일 출석 ● 일 자 5월 30일(화) ● 대 상 자 창업투자회사, LLC, 신기술금융회사, 기타 일반 등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기초 관리 및 조합 실무 이해 ● 신청 기한 5월 22일까지 ● 신청 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

투자협력·M&A

찾아가는 투자 IR

Ⅰ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결과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찾아가는 투자 IR을 경기, 대전, 인천, 부산, 대구에서 총 5회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지방 유망 중소기업 총 250개사, 벤처캐피탈 150개사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회 엄선된 10개사 IR피칭, 벤처캐피탈 20여 개사와 중소기업 40개사와의 투자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회원사 대표, 임직원들이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협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수도권-지방간 벤처투자의 불균형 해소와 전국 벤처투자 붐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투자 IR 등 투자기관에 유망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산업 활성화와 전국 벤처투자 붐 확산을 위해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참가문의: 투자협력팀 박정원 연구원
(Tel : 02-2156-2132, E-mail : pjw@kvca.or.kr)

4/6 경기-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 IR 설명회<경기>



투자협력·M&A

투자 IR 설명회<대전, 인천, 부산, 대구>





5



6



8



7

- ①②③ 4/10 대전-한밭대학교
- ④⑤ 4/20 인천-갯벌타워
- ⑥⑦ 4/26 부산-울산-센텀 디자인센터
- ⑧ 4/27 대구-계명대학교

▶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 계획

지역	날짜	장소	IR기업	상담기업
광주·전라	5.11(예정)	GIST	10개사	40개사
서울·경기·강원	5.18(예정)	판교 테크노밸리	"	40개사

※ 6월 찾아가는 투자 IR 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투자협력·M&A

벤처투자 사랑방

4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투자심사역과 1:1 매칭을 통해 투자유치 절차나 전략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벤처투자 사랑방이 지난 4월 25일에 개최되었다. 벤처캐피탈 3개사와 중소벤처기업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안내 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 현황(2017년도 1분기 기준)

협회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 1분기 확인기업은 151개사로 작년에 비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벤처기업이

11% 증가하였고, 1분기말 현재 협회에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총 1,304개사이다.

2017년 1분기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전체투자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금액
총 투자금	2,011.7
평균 투자금	13.3
최고 투자금	145
최저 투자금	0.5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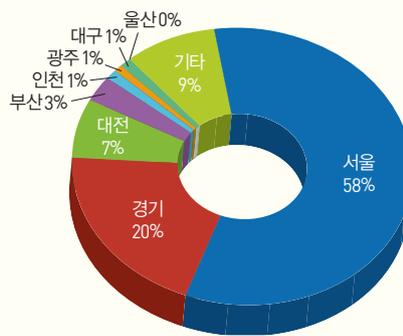
투자유형	기업수	총 투자금	평균 투자금
보통주	43	415.25	9.7
우선주	100	1,283.94	12.8
CB	14	257.74	18.4
BW	7	54.75	7.8

※ 중복 포함

업력별 현황



지역별 현황



업종별 현황



투자재원 및 회사별 현황



기타 : 전문엔젤,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외국투자회사, 기업은행 등

투자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

기업확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 혹은 벤처기업확인 담당자(02-2156-2133/yrkim@kvca.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투자협력·M&A

M&A 활성화 지원사업

| M&A 거래정보망 전문 자문기관 워크숍 개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는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등록된 M&A 자문기관의 역량 향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4월 18일(목) 오후 2시 서초동 VR빌딩 블루룸에서 「2017년도 1차 M&A 자문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도 주요 실적 및 2017년도 M&A 활성화사업 중점 추진사항 안내, 신규 등록 자문기관 소개, 2017년 개정세법(삼일회계법인) 및 M&A 계약의 쟁점(법무법인 율촌)에 관한 자문기관 보수교육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자문기관, 지원센터, 유관기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3월 22일 공고된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의 주요 내용과 2016년 주요 실적을 설명하고, 2017년 신규등록 자문기관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선명인베스트먼트, 한국엠앤에이인베스트먼트의 회사소개를 통해 자문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와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자문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M&A 관련 세제, 법률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자문기관의 M&A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청과 협회는 2017년에도 「글로벌·스타트업 M&A」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M&A 거래정보망 활용 확대, M&A 거

래 인프라 구축, M&A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문기관과 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혁신통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M&A 거래정보망 공지사항, 각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D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18일(화) 변호사회관에서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수 VC 및 지방 중기청 추천을 받은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참여기업 중 해외 VC의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실무자 91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요령 △R&D 사업의 이해 및 서류작성과 평가방식에 대해서 안내하여 R&D 과제 접수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R&D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협회는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핵심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과제



지원 외에 해외마케팅, 인재유입, 디자인, 해외특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신규사업인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올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2017년 4월 CEO조찬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11일(화)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중소기업청 투자연계 R&D 과제 우수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벤처 투자의 성공자질(연사: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연에서는 벤처투자에 있어 성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자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의 본질은 사람이며 CEO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의명분(noble cause)을 통해 사업영위에 있어 본질과 당위성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벤처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VC의 역할을 '투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소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기업(사람)'으로 정의하여 V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CEO 조찬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분야 명사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다음 조찬세미나는 5월 1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소·중견기업 전략기술로드맵 VC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수립하는 중소·중견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VC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월 11일(화)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결과를 설명하고, '17년 추진계획 및 시장·기술·정책 등 변화에 따른 17년 핵심투자주제 및 투자대상 선정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투자심사역 5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앞으로 본회는 기술로드맵 진행상황에 맞춰서 투자심사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장 동정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7년도 제2차 이사회 참석

지난 4월 24일 개최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2차 이사회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서초동에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오찬과 함께 진행되었고 의결 안건으로 정관개정(안), 이사선임(안)과 논의 안건으로 재단 디확정(안)이 있었다.

UN 중소기업의 날 기념,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 참석

4월 12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UN 중소기업의 날 기념,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에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인 대표 120여 명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UN이 'UN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문화 혁신 선언식을 비롯하여 'UN 중소기업의 날' 제정 의의 발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은 "성과 공유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해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모든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확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기청은 'UN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계기로 성과 공유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기업문화 혁신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KVCA

회원사 소식

신규 회원사 소개

더웰스인베스트먼트

The Wells Investment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는 2016년 7월 등록되었으며,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상근하는 임직원은 총 8명이다.

회사명의 의미

'The Wells' 사명 뜻은 '우물 자본'이란 뜻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자본 뿐 아니라 'Solution Capital'로서 필요한 해외 기술 파트너, 경영전략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투자자와 기업의 번영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 자본을 목표로 합니다.

역점 투자분야

더웰스의 주요주주들이 국제금융전문가, 첨단 바이오회사, 국내 최고 VC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상 일차 투자대상은 헬스케어 산업이며, 이를 중심으로 IT와 컨슈머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Cross Border & Deal Structuring' 까지 투자 기업의 재무전략 사업적 필요를 충족시켜 동반 성장하며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투자 원칙 1순위

첫째도 둘째도 사람이다! 따라서 CEO의 '기업가 정신과 비전'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력'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 그리고 '인재관리와 수익모델 실행력'을 중요시합니다.



향후 펀드레이징 전략

지속적으로 기관투자자 및 국가 정책자금 등을 주요고객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국내 PB시장과 해외기관까지 확장하여 펀드레이징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및 협회에 바라는 점

- 국내 VC들이 해외 투자자들과 벤처기업들을 만날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VC업무 보고 양식이나 횡수 등 조금 더 사용자 입장을 배려해 주시고 간편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채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회사와 비전을 공감하는 평생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전문성뿐 아니라 팀워크와 인성을 중시합니다.

KVCA

회원사 소식

네오플렉스

지난해 매출액 20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169억 원)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영업이익은 103억 원으로 100억 고지를 넘어섰다. 전년(72억 원)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수준이다. PEF 운용을 통한 성과가 이러한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성창업투자-수림창업투자

공동운용(Co-GP)하는 농·식품펀드('K-Innovation 수산전문 투자조합')를 통해 첫 번째 투자를 단행했다. 듀얼(Dual)투자 전략을 가동해 펀드의 정책과 수익 목적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이성씨앤아 이와 여수새고막을 첫 투자처로 낙점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

설립 이래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꾸준히 벤처조합과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한 효과이다. 반면 이익률은 지난해 다소 떨어졌다. 설립 초기 고유계정으로 투자했던 자산을 정리하며 일부 투자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주아이비투자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운용하고 있는 농식품펀드를 기대수익률 이상으로 회수해 성공보수를 받은 영향이다. 매출액 35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9% 늘어났다.

원브릿지캐피탈

운영인력을 신규로 영입하고 창업투자회사로서의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최대주주 변경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 추진에 따른 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창업 투자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구주 투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달 KDB산업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파트너스7호세컨더리투자조합'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결성한 세컨더리 전문 펀드다.

포스코기술투자

농심캐피탈과 공동으로 농·식품펀드 운용사에 도전했다. 운용사로 선정되면 농심그룹의 '메가마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대형 할인점의 전국 유통망을 지렛대로 삼아 투자처의 영업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난해 성공적인 조합 청산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 해 동안 거둔 매출 규모가 회사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매출 총합에 육박했다. 넷게임즈에 투자한 M&A 조합의 성공적인 청산에 따른 결과이다.

케이큐브벤처스

3년 연속 흑자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로 두 개의 벤처조합을 만들고, 해당 조합을 통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리보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

2년 연속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 당시와 같은 대박 수익을 거두진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던 벤처투자조합과 사모투자조합 덕에 수익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이희우	이희우, 김동환(공동대표)
씨케이디창업투자	김태영	김주영



휘하면서도 경쟁사 대비 1/5의 원가를 달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바이오텍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요구에 맞는

최적의 비전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알바이오텍

스테레오 비전처리 센서분야에 있어 알바이오텍의 솔루션은 교통관제산업, 스포츠시뮬레이션산업, 의료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관제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보안관제 회사인 에스원(S1)에 산업단지, 어린이보호구역, 군부대등에 설치되는 영상감시 기반의 과속단속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에 이미 십여 개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등 해외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과속 측정 방식은 한 지점에서 Loop를 밟는 경우에만 단속 가능한 방식으로 매설형 LOOP와 레이저, 레이더 결합제품으로 설치가 복잡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테레오 비전 방식은 50~100m까지 거리까지 자동차의 과속을 측정할 수 있으며 특정 구간 전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3개의 차선까지 하나의 과속감시기로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알바이오텍의 교통관제 솔루션은 과속탐지 이외에도 도로 및 생활 방법, 주차 관제, 불법 주정차 방지(그린 파킹), 위법 차량 추적 등 실시간 감시 콘텐츠 등 활용 분야가 넓습니다.

스포츠 시뮬레이션 산업분야에서는 리얼야구존, SG골프 등, 선두 서비스사업자의 차세대 센서로 채택되어 이미 이들 업체에 궤적 추적 센싱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바이오텍의 스포츠용 센싱 솔루션은 초당 1,000프레임 이상의 고속의 영상데이터에서 대상을 추출하여 0.1초안에 타킷의 물리적 3차원 궤적을 분석 추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포츠 분석영상을 수천만 원대의 초고속 카메라와 비슷한 영상을 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야구, 골프 시뮬레이션 시



장 이외에 가정용 스포츠 분석 및 티칭 시스템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산업분야에서 알바이오텍은 스테레오 비전기술과 IMU센싱 기술을 결합하여 서울대보라매병원, 한양대학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과 관절염, 외상 후 하지장애 등 정형적 손상, 뇌졸중, 파킨슨 등 신경질환에 의한 하지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용 동작분석솔루션을 개발, 2016년 KFDA 의료기기인증과 병원에서 수가청구가 가능한 의료보험수가(동작분석 EZ774)코드를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소재 6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임상시험 중이며, 임상시험 후에 국내 정형외과, 임상통증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하지보행 분석 및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알바이오텍은 의료시장에서 하지 질환에 대한 분석 및 치료 교정용 인솔 및 교정장치 등 의료사업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알바이오텍은 국내 최고의 센서 전문 인력이 모인 회사입니다. 박사급 전문기술인력들 다수가 스테레오 비전센서, IMU센서 등 다양한 센서의 원천기술, AI 알고리즘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연구 중심 회사입니다.

알바이오텍은 현재 해외시장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교통관제사업은 에스원(S1)과 함께 올해 베트남의 산업단지 교통관제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사업을 토대로 하여, 단계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단지의 교통관제 시장규모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스포츠사업 분야는 정확한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가정용 골프훈련스원분석 및 훈련 시스템 공급 사업을, 의료사업 분야는 미국·유럽의 병원내 보행장애 분석 및 훈련시스템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바이오텍은 진행 중인 사업 분야 이외에도 로봇,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전센서를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센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비전 인텔리전스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알바이오텍(주)는 기업 성장자금 마련을 위해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알바이오텍(주) 김영국 대표이사(070-4225-406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이슈

ISSUE

2017년 VC 투자유망산업(AR)

세상을 바라 보는 새로운 창, 증강현실



김상국
(주)한울네트웍 부사장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단말 개발뿐만 아니라 자사 플랫폼과 콘텐츠의 강점을 기기에 결합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스마트폰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AR·VR 시장도 유사한 패턴으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시장가치 창출에 대한 희망

2007년 초겨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처음 접했을 때 새로운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창(플랫폼)임을 강하게 느꼈고 홀로그램으로 가는 길목이 AR이라고 직감 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 해석이 분분하여 표준화된 개념 정의가 없다. 산업현장에서 10여 년간 AR을 화두로 개발을 한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범주에 들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년의 세

월이 지난 지금 증강현실은 드디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지지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

포켓몬GO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강현실은 호소력 있는 콘텐츠를 창출하지 못하고 '흥미롭지만 매력 없는 기술'로 가치하락 되어 이용자가 다시 서비스를 찾게 만드는 '고착성(stickiness)'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나이언틱에서 포켓몬GO를 출시하여 몇 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6억 돌파, 매출 1조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증강현실 콘텐츠의 시장가치 창출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준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조사기관 디지캐피탈에 따르면 세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시장 규모는 2020년 1,500억 달러로 이중 AR이 1,200억 달러, VR이 3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CCS인 사이트는 AR·VR 디바이스 출하량이 2018년 2,4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AR·VR 시장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면서 페이스북(오culus), 구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출시된 주요 제품을 보면 오culus 리프트(페이스북), 기어VR(삼성전자), 아베간트 글리프(아베간트), 포브VR(포브), 레이저 OSVR(레이저), VR원(자이스), 호미도(호미도), 아코스 VR헤드셋(아코스), 구글 카드보드와 글래스(구글), 홀로렌즈(MS) 등 형태와 가격대가 다양하다.

강점을 기기에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

경쟁형태를 보면 지금까지는 기기 개발에 중심이었지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필두로 교육, 의료, 국방, 미디어, 제조 등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 소니, 페이스북 등은 AR·VR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을 주도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매직리프를 인수한 후 뉴욕타임스와 공동으로 구글 카드보드를 통해 V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VR 지원 영상을 올려 카드보드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AR을 구현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AR·VR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소니는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AR·VR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과거에 게임 콘솔(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 게임과 콘솔 시장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AR·VR 시장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처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단말 개발뿐만 아니라 자사 플랫폼과 콘텐츠의 강점을 기기에 결합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스마트폰이 플랫폼과 콘텐츠 마켓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AR·VR 시장도 유사한 패턴으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AR 관련 유망 사업 분야는 하드웨어, 전자상거래, 데이터비즈니스, 음성통화, 영화·TV프로그램, 기업용 앱, 광고, 소비자용 앱, 게임, 테마파크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방식의 VR·AR을 이용한 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 만족 면에서도 뛰어나며, 교육의 효과에도 탁월하며 VR·AR의 교육 활용에 있어서도 고객들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전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존 헵크 나이언틱 창업자가 2017년 통신사업자들의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주요 연사로 나와 "현재까지 증강현실이 이룬 성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분야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콘(beacon)과 같은 위치 기반 기술이 개선된다면 AR은 많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헵크 창업자는 구글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AR은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나이언틱은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 등을 활용하면 AR 게임의 적용 범위가 커진다는 판단하에 나이언틱은 지난해 11월 애플 위치에 포켓몬고를 시작했다.

정리를 하면, 이제는 VR·AR과 웨어러블, 5G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모든 인프라 기반의 기술과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혼합되어 한 가지 기술이나 특정 분야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VR·AR 교육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기술에 대한 발전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R·V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관련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연구 개발과 함께 단말, 플랫폼, 콘텐츠(서비스)로 구성되는 VR·AR 생태계 구축에 더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온라인·모바일 게임, 웹툰, 음악 등 한류 콘텐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서비스 적응력이나 응용력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T 기술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 증강현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가상의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인만큼 현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 이로운 콘텐츠로 다가가야 한다.

세상의 모든 기술은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AR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새로운 플랫폼 AR을 접하게 될 것이다.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23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은 민간의 선별능력과 역량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정부 R&D 연계지원 등으로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해 왔음

사업주체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제19조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①(생략)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사업의 운영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운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①(현행과 같음) ②
1.2.(생략) 3.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5.(생략) <신설>	1.2.(현행과 같음) <삭제> 4.5.(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운영자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

벤처캐피탈 법률 Q&A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가부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안의 개요 :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쟁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 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¹⁾

1) 다수의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가의 문제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결정할 것이지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나, 증권회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러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증권계좌의 명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론이 다수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음

2017년 삼목회 도쿄 워크숍

도쿄, 테크노 프론티어 전시회 및 아시모 쇼 방문기



정민식
LB인베스트먼트 경영기획 부문 부장

삼목회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리스크 관리나 LP 보고, 제도, 세무 및 재무 등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임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획관리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정보 공유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단체입니다. 18년간 수많은 분들이 삼목회를 통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관련 정보나 이슈를 나누며, 때로는 해외에서 박람회나 기업탐방을 통해 글로벌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혼다의 아시모 로봇

2017년 4월에는 도쿄를 방문하여 테크노 프론티어 전시회와 혼다 본사에서 열린 아시모 쇼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의 IT 기업들이 전기차와 로봇,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분야를 통해 재기에 나섰다 하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전기·전자 강국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 혼다(HONDA) 본사에서 본 아시모(ASIMO)는 가장 인간과 닮은 로봇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움직여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키 130cm, 몸무게 4~50Kg에 배터리를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을 한 아시모(ASIMO)는 시속

4~5km로 걷고 9km로 뛰기도 하며, 한발로 점프하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손을 움직이면서 음성으로 인사도 했는데, 이는 흡사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 어린이가 노는 것과 비슷한 인상이었습니다. 복부와 허리에는 초음파 센서가 달려있어서 주변 3m 이내로 접근하는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피해 가기도 하고, 10개의 손가락 관절을 이용하여 수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를 주력으로 만든 혼다는 1986년에 로봇산업,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까지 제작하고 있으니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야에 비용을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제1세대 아시모(ASIMO)가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비로 3,000억 원을 썼다고 하니 로봇에 한정해서 수지 타산을 따진





다면 손해를 보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혼다는 '기술의 혼다'라는 별칭답게 30년째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다는 이 투자로 전방위 확장성과 파급력을 가진 로봇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사물을 판단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은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고, 한 발로 뛰었다가 착지할 때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은 비행이나 바이크 운행에 적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아시모가 쇼를 보이기 전에는 여성 직원분이 오토바이 안장만 분리해 놓은 것처럼 생긴 개인용 소형 모빌리티, 유니 큐브 베타(UNI-CUB B)에 타고 나왔는데 진행 방향으로 몸을 가볍게 기울임으로써 발생하는 무게중심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혼다는 일견 관계없는 분야에 잇따라 뛰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고, 또 이것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된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술을 확장해서 연결 짓는 혼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Ginza place에 새로 오픈한 소니 쇼룸

혼다 본사에서 멀지 않은 긴자의 Ginza place에는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소니 쇼룸이 있습니다. 원래 50년 동안 소니가 있었던 빌딩은 3월 말에 영업을 종료하고 2022년 이후 새로운 소니 빌딩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inza place의 1~2층에는 Nissan 갤러리가 있으며, 소니는 4~6층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4층은 카메라, 5층은 PlayStation VR, 6층은 사진 갤러리로 이루어져 있



니다.

과거의 소니는 전자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고, 참신하고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면서 뒤따라가기 바빴던 난공불락의 이미지였으나, IT와 휴대폰 분야에 뛰어들지 않아서 결국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를 만에 27%의 주가가 빠져 8,950억 엔(약 10조 원)이 사라지고 일본 전체의 전자 업체에 타격을 미치게 되는 소니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TV시장에서도 삼성에게 추월당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LG에게도 밀려 3위권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수년간 적자에 허덕였던 소니는 카메라 이미지센서와 비디오게임기의 호조에 힘입어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 조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TV 부문 축소, 컴퓨터 사업 철수, 소니의 신화वाद 같은 워크맨 분사 및 수천 명대 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카메라 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소니 카메라 사업부를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에 들어가서 새롭게 오픈을 준비하는 소니 빌딩을 보면서, 사업부문과 인력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감행한 소니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긴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UNIQLO)

긴자는 오래된 도시이지만 대표적인 변화가라고도 합니다. 명품숍과 백화점이 대로변에 즐비해 서 있으면서도 작은 골목길에는 옛날부터 계속되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전병 가게나 빵

가게, 중고 카메라점 등 100년이 넘는 상점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현대와 옛 것의 조화가 긴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긴자의 대로변에는 2012년 오픈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UNIQLO)가 있습니다. 앞서 본 소니와 같은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불황으로 침체 일본도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하거나 수두룩하게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부각된 기업으로, 우리나라 주요 쇼핑센터에서도 빠지지 않고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창업자인 야나이 회장의 재산은 2017년 2월 기



준 160억 달러로 일본 1위, 전 세계 갑부 57위 순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가볍고 보온성을 갖춘 상품력, 특수소재의 제품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가격경쟁력, 대히트를 기록한 플리스 재킷이 전국 어느 매장에서든 품질로 인해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방식을 사전 확립하여 재고를 준비하는 공급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직접 맡아서 소비자의 요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유행에 맞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패스트패션이란 신조어를 창출하기도 한 유니클로는 '속도'를 가장 중요한 경쟁무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판매 기회를 잡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조해야 시장의 변화 속도에 따라갈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의류의 진열 방식도 독특한데, 다른 SPA 업체들이 의류 진열을 행거에 걸어놓는 방식을 사용할 때 유니클로는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이 입었다가 벗어둔 옷을 다시 접어서 선반에 진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더 들지 몰라도 이 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과 잘 사 가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패가 쌓여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도전해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 야나이 회장의 마인드는 실패 용인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도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일정 첫날 저녁에 올라갔던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TV와 라디오 방송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 수신용으로 1958년에 완공된 333m 높이의 탑으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펠탑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점차 고층 빌딩이 여기저기 세워진 탓에 전파탑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파탑으로 근처에 도쿄 스카이트리가 2012년에 634m의 높이로 건설되었습니다.

도쿄타워가 세월이 흘러서 최고 타이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전파탑 본연의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설, 영화 등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도쿄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동향

MARKET TREND

3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해 8월 KDB산업은행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어 ‘에스비글로벌벤처펀드’ 결성을 추진했다. 국내외 유망 ICT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LG유플러스 등이 출자했으며,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업 및 해외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예정이다.

유안타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KDB산업은행의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두 번째 세컨더리 펀드인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를 결성했다. 주목적 투자분야는 벤처펀드의 구주 지분과 개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 지분 및 코넥스 기업의 구주 지분이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는 올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자한 기술가치평가 펀드를 결성하고 2개월 만에 KDB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인 ‘알바트로스퓨처코리아투자조합’을 출범했다.

- 2017년 3월에 1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세컨더리 펀드 4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에스비글로벌벤처펀드’가 1,21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의 ‘SBI크로스보더어드벤처펀드’, 유안타인베스트먼트의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가 각각 810억 원, 55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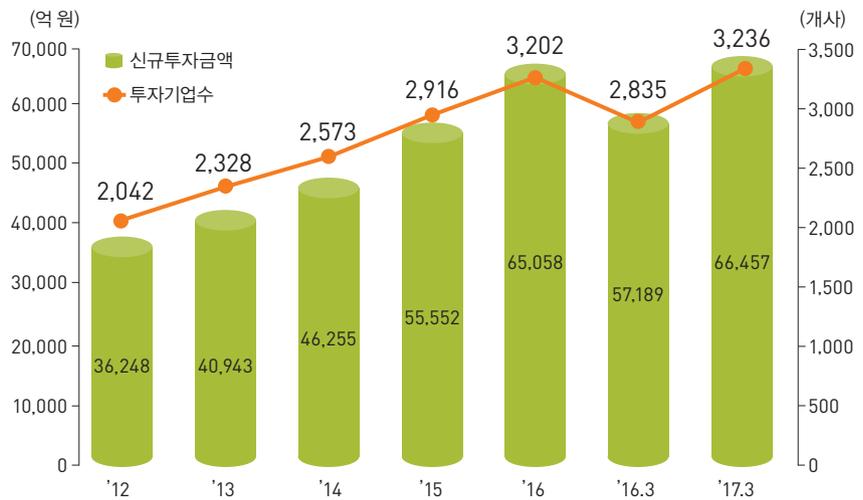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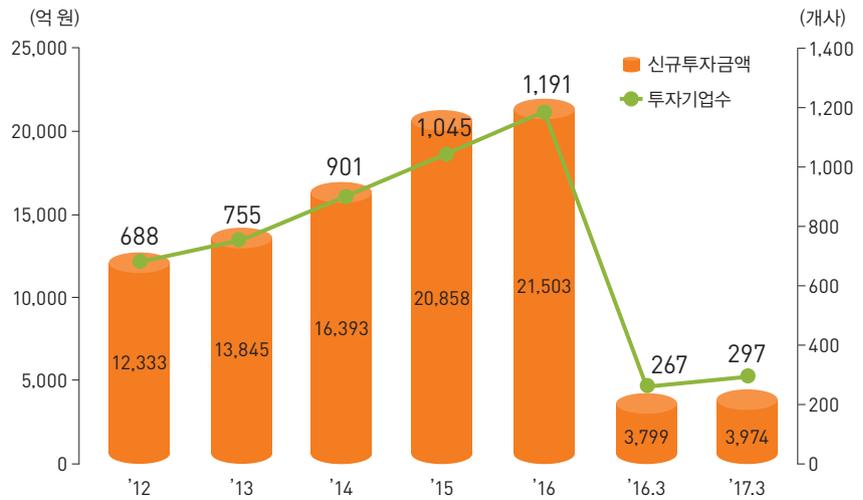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창투 조합	케이앤디지털콘텐츠2호투자조합	20	일반	중소· 벤처일반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창투 조합	알바트로스퓨처코리아투자조합	290	일반	일반기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창투 조합	우리은행-컴퍼니케이 한국영화투자조합	120	문화	영상 (영화+드라마 +애니메이션)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KVF	SBI크로스보더어드벤처펀드	810	일반	중소· 벤처일반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KVF	파트너스7호세컨더리투자조합	500	일반	일반기타
유안타인베스트먼트	KVF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	550	일반	중소· 벤처일반
소프트뱅크벤처스	KVF	에스비글로벌벤처펀드	1,210	일반	중소· 벤처일반
플래티넘기술투자	KVF	플래티넘-유망산업펀드	290	일반	중소· 벤처일반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KVF	코그니티브유망서비스산업투자조합	143	일반	중소· 벤처일반
케이비인베스트먼트	KVF	KBPreIPO세컨더리투자조합1호	110	일반	중소· 벤처일반
마그나인베스트먼트	KVF	마그나포커싱펀드	40	일반	중소· 벤처일반

2017년 1분기 벤처투자 시장동향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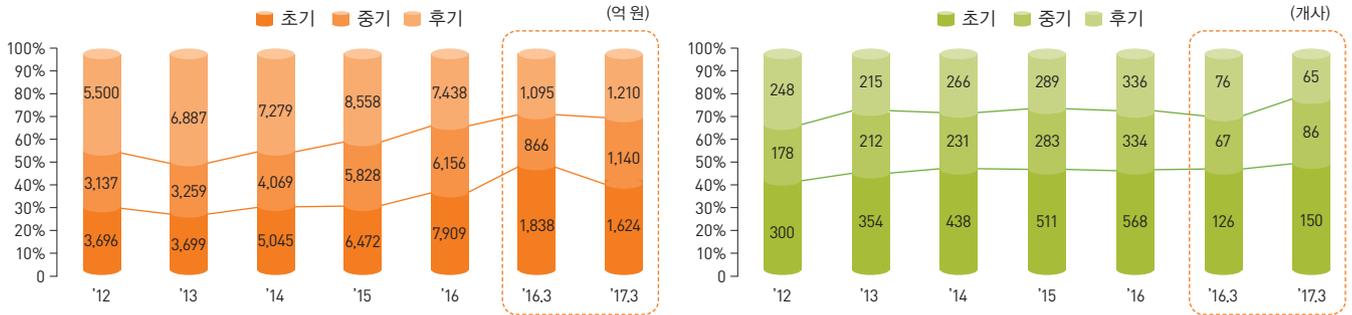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1분기에 신규투자는 3,974억 원으로 전년 동기(3,799억 원)보다 4.6% 증가하였고, 투자업체수는 297개사로 전년 동기(267개사) 대비 11.2% 증가하였다.
- 3월에는 바이오리더스가 1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 펀플웍스, 패스트파이브, 에이비엘바이오, 에스티유니타스 등의 순이었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분기까지 3,236개 업체에 6조 6,457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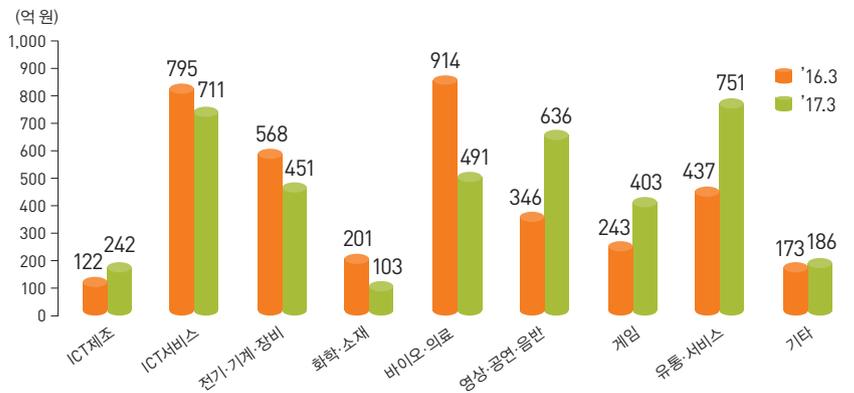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분기에는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40.9%로 가장 컸으며, 후기기업 30.4%, 중기기업 28.7%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751억 원, ICT서비스 711억 원, 영상·공연·음반 636억 원, 바이오·의료 491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영상·공연·음반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2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바이오·의료 분야로 423억 원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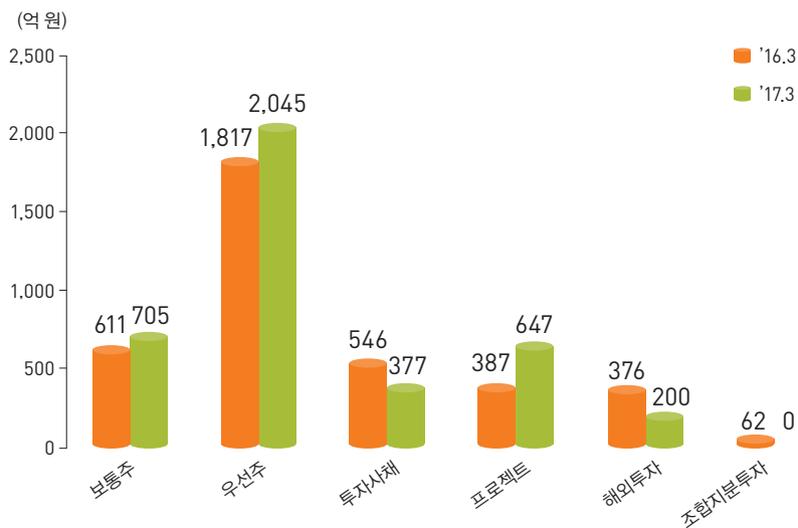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3	2017.3
ICT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122	242
ICT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795	711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568	451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201	103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914	491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346	636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243	403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437	751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173	186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3,799	3,974

2017년 1분기 벤처투자 시장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2,045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705억 원으로 17.8%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6억 원 감소하였다.
- 프로젝트 투자가 전년 동기(10.2%) 대비 6.0%p 증가한 16.2%로 확대되었고, 우선주 투자는 51.4%로 전년 동기(47.9%) 대비 3.5%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5.0%로 전년 동기(9.8%) 대비 4.8%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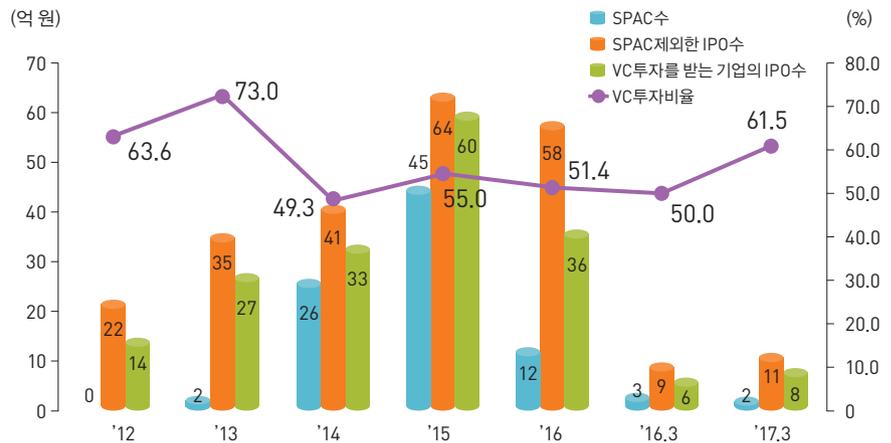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3	2017.3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611	705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1,817	2,045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546	377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387	647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376	200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62	0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3,799	3,974

- 지역별로는 서울(60.6%)을 비롯한 수도권(80.2%)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 광역시 7.9%, 지방 6.8%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도 14개사 200억 원(5.1%)이 투자되었다.

투자회수

유형별 회수

- 1분기까지 회수원금은 1,533억 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2.5%, IPO 20.3%였다.
- 특히, 3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56건의 거래를 통해 158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87억 원(5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71억 원(44.9%)이었다.
- 올해 2월까지 17억 원이었던 M&A 회수는 3월에 77억 원이 추가로 회수되어 전체 회수 비중의 11.5%를 차지하였다.
- 3월에는 코스닥시장에 6개사(에스디생명공학, 대신밸런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아스타, 코미코, 서진시스템, 유비쿼스)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에스디생명공학, 아스타, 서진시스템 3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3	2017.3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759	311	
M&A	72	22	163	150	329	30	95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658	345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724	621	494
	채권	1,165	1,025	1,311	1,614	1,045	102	167
기타	188	736	217	342	476	85	121	
합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2,255	1,533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2017년 1차 정시출자 사업에서 최종 위탁운용사(GP) 27곳을 최종 선정했다. 출자 예정액은 총 2,939억 5,000만 원이며 최소 조합 결성규모는 5,747억 원이다. 또 3월 수시출자 사업에 신청한 3곳의 운용사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4월 출자사업 접수결과 신청조합수 1개, 총 결성금액 860억 원 출자요청액 1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벤처투자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3월 수시 출자사업 결과 (단위: 억 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최소 결성액	모태 출자액
1차 정시	중진	청년창업	쿨리코너인베스트먼트	100	60
			세종벤처파트너스	100	60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200	120
			패스파인더이치	150	90
		엑셀러레이팅	더웰스인베스트먼트	100	60
			비에이파트너스	140	84
			심본투자파트너스	175	105
			미래셋벤처투자	250	150
		고급기술인력창업	포스코기술투자	200	120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167	105
			제이엑스파트너스	125	75
			코메스인베스트먼트	145	85
	여성기업	인터밸류파트너스	125	75	
		케이런벤처스	150	90	
		디타임인베스트먼트	150	100	
		스몰M&A매칭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400	200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네오플러스	300	120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50	100
		방송·드라마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150	100
			지온인베스트먼트	120	72
문화	콘텐츠기업육성	화이인베스트먼트	600	300	
		아이디벤처스			
	소액투자전문	지비보스톤창업투자	150	100	
미래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유니온투자파트너스	150	100	
		이에스인베스터	120	80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이수창업투자	240	140
			캐피탈원	240	14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보광창업투자	120	70	
		세컨더리	송현인베스트먼트	300	30
3월 수시	중진	KVF결성목적	시너지아이비투자	30	1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400	7.5
			허난진엔투자유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4월 13일(목) 2017년 산업은행 PE·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올해 펀드 위탁운용 출자 규모는 PE펀드가 4,500억 원, VC펀드가 1,600억 원으로 총 6,100억 원이다. 민간자본과의 매칭을 통해 1조 3,5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올해 펀드 조성 중점 방향은 ▲ 사업 재편 및 확장 ▲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회수시장 활성화 등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용사 리그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운용사 리그제는 운용사를 펀드 운용규모와 업력 등을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 루키 등 4개 리그로 나눠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 M&A 펀드 3차 위탁운용사로 키움증권과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두 곳을 선정했다. 일반분야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성장 사다리 펀드 출자금액은 750억 원이며 펀드 결성 예정액은 2,000억 원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 분야 운용사는 키움증권이 선정되었고, 성장 사다리 펀드 출자금액은 350억 원이며 펀드결성 예정액은 1,000억 원이다. 성장전략 M&A 펀드(3차)는 기존 인수합병(M&A)펀드와 같이 중·소 중견 기업(SI)과 공동으로 M&A 전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2013년)에 이어 2차(2015년), 3차(2016년, 중소·벤처분야) 출자사업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7개 펀드가 조성돼 운용 중이다.

한편,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신산업 육성 펀드 중소·벤처펀드의 운용사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각각 150억 원을 출자받아 5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를 결성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오는 10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탈(VC)분야 블라인드펀드위탁운용사(GP)로 5곳을 선정하고 75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PEF 펀드 위탁운용사는 도미뉴스 인베스트먼트, 에스지 프라이빗에쿼티 등 2곳이다. 이들은 각각 250억 원의 위탁 운용 자금을 받게 된다. VC 펀드는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각각 100억 원, 5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 VC 펀드 운용사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SL인베스트먼트가, 중·소형으로는 MG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선정됐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관련 규제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구독 신청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